

헤그세스 미국방장관 지명...해외미군 철수 지지·김정은 옹호

예비역 소령 출신 이례적...뉴스 진행자로 지원 사격 충성과 "김정은 주민 살해 원치 않아" 언급...“전쟁범죄” 군인 구명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집권 2기 정부 국방부 장관으로 '깜짝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는 육군 주방위군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포스뉴스에서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해온 '충성파' 인사다.

군인 출신 국방장관의 경우 주로 예비역 장성들이 맡아왔는데, 예비역 소령 출신인 그의 발탁은 아주 이례적이다.

1980년생으로 올해 44세인 그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1기 정부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검토됐으나 주요 보훈 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미네소타주 출신인 헤그세스는 프린스턴대를 졸업했으며 이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도 받았다.

그는 프린스턴대 졸업 후 애널리스트로 취직하면서 미 육군 주방위군에서 보병 장교(소위)로도 임관했다. 그는 관타나모 기지에서 미네소타 주방위군 소대장을 했으며 이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도 자원해서 복무했다.

헤그세스는 2012년 미네소타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포스뉴스에 전문가로 출연해 활동하다 프로그램 공동 진행 등을 맡았으며 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 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그는 8년간 포스뉴스 호스트로 있었으며 해당 플랫폼을 군과 예비역을 위해 싸우는 데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집권 2기 정부 국방부 장관으로 '깜짝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헤그세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동안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교류를 옹호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미국 우선

주의' 의제를 수용하는 등 트럼프의 현신적 지지자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이와 관련, 헤그세스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의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인 2018년 5월 포스뉴스에서 북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데니스 로드맨을 만나길 원하고 미국프로농구(NBA)를

좋아하며 서양 팝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루 종일 자기 주민을 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이라크 파병 때의 전쟁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미 해군특전단(네이비실) 대위 에드워드 갤러거 등의 징계를 철회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당시 갤러거에 대한 강등 조치를 번복한 후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해군 장관을 경질했다.

헤그세스는 지난 9월 출간된 책 '전사들에 대한 전쟁'을 내고, 군의 '워크(Work·진보·어젠다 및 문화 통칭) 문화'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영화 '다이하드'의 주인공 존 매클레인을 거론하면서 "사실 그들(엘리트)이 평화와 번영의 삶을 사는 능력은 명예롭고 강력하면서 치명적인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항상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日조선학교 초중생 약 100명 이달 北방문”

北 대남 적대시·우크라전 파병에 조총련 내부서 반발·당혹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인 조선학교 초중학생 약 100명이 내년 설맞이 공연을 위해 이달 북한을 방문한다.

13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조선초급학교와 조선중급학교 학생 약 100명이 교토조선중급학교 교장 인솔하에 이달 중순 북한을 찾는다. 초급학교와 중급학교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한다. 조총련은 각 학교에 보낸 문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 동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지참을 불허했다.

조선학교 학생들은 내년 1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설맞이 공연에 5년 만에 참가해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라는 명칭으로 가극과 악기 연주 등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내년) 공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다"며 "공연은 김 위원장을 예찬하는 내용도 포함돼 과거에는 학생

들의 참가를 문제시하는(일본) 지자체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조선학교 학생이 북한 원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조선중앙TV로 방송됐고, 오사카부가 이를 계기로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보류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폭파한 것과 관련 통일을 중시하는 교육을 해 왔던 조총련 내부에서 혼란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당혹감도 (조총련 내부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북한 방문이 파문을 부를 듯하다"고 짚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 중 다수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일본 조선학교 차별 철폐하라!

일본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4·24 교육투쟁' 75주년을 맞아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伊 이란 영사관 앞 '속옷 시위' 여대생 벽화 등장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의 이란 영사관 인근에 며칠 전 이란의 한 대학에서 '속옷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이란 여대생의 모습이 그려진 벽화(사진)가 등장했다.

12일(현지시간) 밀라노투데이에 따르면 이 벽화는 이탈리아의 팝아티스트 알렉산드로 팔롬보가 지난 10일 공개한 작품이다. 팔롬보는 이 여대생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란 영사관 인근 건물 외벽에 이 그림을 그렸다.

벽화에서 여성은 이란 국기가 그려진 속옷 상의와 영어로 '자유'(freedom)라는 단어가 적힌 빨간색 속옷 하의를 입었다.

팔롬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녀의 몸짓은 심오하고, 그녀의 희생은 파괴적"이라며 "그녀는 자기 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이란 여성들의 자유와 용기의 외침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이 되지 않도록, 무관심하지 않도록 외면하지 말고 함께 싸워달라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팔롬보는 풍자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날카롭게 꼬집는 예술가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슬람아자드대학교 이과대학 캠퍼스 내에서 한 여대생이 속옷 차림으로 교내를 돌아다니는



포되는 동영상 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돼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 여대생은 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지도순찰대)에게 폭행당하자 학교 안에서 이뤄진 허잡 착용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속옷만 입고 교내를 걸어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신체 노출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이란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사회·종교적 금기에 저항하는 모습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연합뉴스

중서 고의로 차량 돌진...35명 사망·43명 부상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하이시 공안국은 지난 11일 오후 중대 악성 사건으로 지금까지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운전자 판오(62)씨가 몰던 소형 오프로드 차량이 체육센터로 돌진해 센터 내 도로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덮쳤다고 설

명했다. 이어 현장 조사와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 판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사건을 고의로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판씨는 차에서 칼을 들고 목부위 등에 자해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